데스크 시각



채 희 종 사회2부장

#. 네가 양계(養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 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 해 보렴. 빛깔에 따라 구분해 보기도 하 고, 횃대를 달리 해 보기도 하거라. 닭을 살지고 번드르르하게 길러 다른 집보다 번식도 낫게 해야지. 간혹 닭을 관찰해 시 (詩)를 짓도록 해라. 이것이 글 읽는 사람 의 양계니라. 만약 이익만 따지고 의리는 거들떠보지 않는다거나 기를 줄만 알고 운치는 모른다면…(중략) 못난 사내의 양 계인 것이다. 너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이왕 닭을 기르려면 옛 책에 서 닭에 관한 기록을 베껴 모아 목차로 정 리하면 좋겠구나.

닭 한 마리 키우는 데도…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05년 자신 을 찾아온 맏아들로부터 작은아들이 양 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맏아들 편에 작은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다. 그는 닭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 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하며, 자신만의 양계 노트를 만들라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닭 에 대해 열정을 갖고, 시 짓기를 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정약용의 양계(養鷄)

정약용은 '양계 편지'를 통해 지식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이나 위기관리 또는 상황 판단력 등과 같이 지도자들이 갖춰 야 할 특별한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 경영이나 학문 같이 거창한 목표가 아닌, 양계처럼 소소한(?) 일일지라도 '기본 소 양'과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최순 실 국정 농단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또다 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 대통령과 정 부의 무능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대한민 국이 국가로서의 기본 틀조차 갖추지 못 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 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에 수준 이 하의 자세로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이제 할 말마저 잃었 다. 더 나아가 애초 깜냥이 안 되는 줄 알 면서도 대권 후보로 내세웠던 여권 정치 인들을 같은 부류의 공모자로 싸잡아 비 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을 뽑은 것은 국민 이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 율이 역대 최고일 정도로 지지해 준 이도 국민이었다. 기본이 안 된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선택해 놓고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한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수준이 곧 우리의 수준 아닌가.

질의응답조차 없는 일방적인 기자회견 과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갖지 않은 불 통 대통령을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지지했고, 지역감정에 휩싸여 맹목적인 몰표를 던졌고, 품성이나 능력 검증 없이 보수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조건 찍은 결과다.

좋은 대통령 뽑으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 농 단을 계기로 더 이상 정치를 정치인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정치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에 직결돼 있고, 정신적 물질적 삶의 질마 저 좌우한다.

정약용은 닭 한 마리 기르는 데도 기 초 공부를 해야 하고, 양계에 성공하려 면 열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이라면 이제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공 부를 해야 한다. 만들어진 홍보물과 공 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후보의 발 언을 곱씹어 보며 당사자의 품성과 사회 성, 지도자로서의 인식 등을 검증해야 한다. 평소 인터뷰나 저서 등도 뒤적여 봐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후보 들이 각종 행사나 매체에서 했던 말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정성을 기울 이면 거짓말을 잘하는지, 약속을 잘 어기 는지, 말을 자주 바꾸는지, 실속은 없으 면서 겉만 번지르르한지, 반대 세력이 있 음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지 등을 구별

때마침 광주·전남기자협회가 9일 오후 5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좋은 대통 령을 뽑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제 국민이 대 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국가의 주 인이자 '왕'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chae@kwangju.co.kr

은펜칼럼

입춘에 봄을 생각하며



서 미 정 광주시의원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주말이었다. 겨울이 춥지 않고 눈 소식이 적어서 그런지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도 모르고 평범한 주말이겠거니 했는데 당 일에서야 입춘인지를 깨달았다.

이제 몇 번의 꽃샘추위가 지나면 진짜 봄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겨우내 얼었던 만물이 깨어나기 때문이며, 이번 봄은 자연과 함께 우리 사 회도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기에 시민들 의 기대는 남다르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5. 18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을 통 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군부독재보 다 더 못한 겨울왕국 되어버렸다. 지난 시 절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군쿠데 타로 정권을 가져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시절 갖은 만행으로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되레 더 높은 자리

에 오르고 더 큰소리를 쳐왔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감수하라면서 측근 과 가신들에게 국가에 고루 배분되어야 할 이득을 가져가게 하는 농단을 벌였다. 정치 상황은 군부독재시절로 후퇴했지만 철학과 외교, 민생경제 등은 조선시대만 큼 후퇴했다. 또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고 위직 자리가 최순실을 통해 매관매직되 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역사 중 어 디쯤으로 후퇴된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발 뺌만 하는 상류층의 민낯을 보면서 지인 의 말이 떠오른다. '이만큼 밝혀지고 이렇 게 많은 사람이 진실과 죗값을 원하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감추는 모습에 부아가 치밀어 이번 겨울은 촛불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추위가 온 세상을 덮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가 되면 소 복이 쌓인 눈 밑으로 감춰져 있던 것들은 드러날 것이고 새로 갈아엎어질 것이다. 해마다 깊어지는 국민의 의식을 보면 이 번 봄에는 무엇인가를 해도 단단히 이뤄 낼 것이라 믿는다.

그러기에 이번 봄에는 평소보다 더 바 쁠 것이다. 먼저는 두터운 겨울옷 정리하 듯 지금까지 축적된 적폐와 비리, 농단 관 련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친일청산이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든 문제와 갈등의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역사 앞에 떳떳한 계급과 역사를 계속 매장해야만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는 계급의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건 불가능하다. 비루하게 왜곡된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청산되지 못한 역사, 거짓이 계속 거짓을 부르게 만 드는 이 고단한 시대의 패배자는 속죄의 길을 찾지 못하여 계속 비굴할 수밖에 없 는 그들이다"라는 목수정 작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번째로는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입 춘첩을 붙이듯 세계에 우리나라의 정국 이 안정되었음을 알리고 꼬일대로 꼬인 외교와 통상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드 문제와 미·중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원 칙, 소녀상으로 상징화된 위안부 할머니 문제,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외교관들에 대한 비리척결과 국제적 위 상 되찾기 등 하루아침에 풀 수 없는 일들 에 대한 발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남 았지만 우리가 들었던 촛불과 탄핵이 봄 을 맞이하기 위한 대청소였다면 이젠 장 롱 속에 넣어 두었던 봄옷을 꺼내 입을 준 비하듯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정책 들을 내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에게 제안을 하

근원인 점을 잊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지면 상대방이 낸 공약이라도 대한민국 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받아들 일 것,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삼는 행위와 반민주적이고 '빨갱이' 같은 근거 없는 주 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친서민적, 친약자적 정책의 실행 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가 있다.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 는 것은 이번 국정농단으로 전 국민이 입 은 트라우마를 하루빨리 치료해야 하고 이를 남의 잔치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의 해소, 진 실을 감추려 했던 자들에 대한 단죄까지 이뤄져 하루빨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하기 때문

따뜻한 날씨에 취해 너무 이른 봄 얘기 를 꺼내 경솔히 보일까 걱정이 들지만, 추 운 겨울 쪽방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어르 신들과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 어야 하기에 빙판길이면 그 어디에도 나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생각하 며 그들의 희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 고자 이른 계절 인사를 전해 보았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 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 는 코너입니다.

기 고

시계 제로 시대, '온전한 나'로부터 출구를 찾자



이 재 진 전남도립대 경찰경호학과 교수

탄핵 정국이자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 (lame duck) 가속화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으로 치달으 면서 지방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골목상 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의 경우도 경색되고 있다. 2017 년 정유년에도 청년실업의 해소는 기대 난망으로 읽힌다.

기업들이 탄핵정국 이후, 고용과 투자 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불 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인공지능기술 (AI),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의 연착륙을 목전에 두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게 사회 공정성을 근거로 내세우 며 생산적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자산만 쌓고 있느냐고 항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설령 기업이 투자를 위해 생산시설을 갖 춘다고 한들 기대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리도 만무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부문이 부상함에 따라 적어도 10년 안에 70% 이상의 직업 군이 사라진다는 전언에 의하면 우리 시 대 안정된 직업군이 유물화될 처지에 놓 여 있다. 예컨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지어 주는 약사, 뉴스를 팩트(Fact) 위주로 작 성하는 신문기자, 일정한 타이프를 지닌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판사·변호사 등도 인공지능으로 처리 가능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는 점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이 '힘들 때 태어나서 거센 풍파를 겪은 게 우리 자 식이 아니라 우리라서 참 다행이다'는 대 사에 공감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또다 시 50대 중후반에 접어든 우리 세대가 '역 풍파'를 맞은 형국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의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세대에 비해 우리 세 대는 추억과 낭만이라도 챙길 수 있었다. '민(民)은 이식위천(以食爲天)'이라는 말 이 있듯이 먹고 사는 게 삶의 전부였다면, 요즘 세대를 지칭하는 '실신시대(실업과

신용불량)', '청춘파탄시대', '3포·5포·7 포시대' 등의 신조어에 접하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열강의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한반도 의 정치·지정학적 위상도 위태롭다. 중국 은 한·미 간 사드 배치로 한한령(韓限令) 을 가속화하고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라는 기치 하에 미국의 이 익을 최우선화(America First)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외세의존도가 높은 우리 로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면초 가에 놓일 게 명약관화하다.

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남과의 분쟁 조정보다 가족 간 분 쟁 조정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가족간 분쟁이 판결로 가게 되면 자 식대까지 가족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 어버리기 때문에 나름 소명의식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정을 해보려 애 써도 번번이 실패하곤 한다. 최근 연간 이 혼율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율도 마찬가지다. 불안하면 가 족이 함께 도와주었던 시대가 아니라 손 해라 생각하면 내팽개쳐지는 시대가 되 었다. 그렇다고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시스템도 구조적인 장애로 기대하기 어 렵다.

'강연 100° C'에서 한 택시기사의 성

공담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다. 서울에서 모범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어느 날 갑자 기 승객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대리운전 때문이었다. 그 기사는 앞 날이 캄캄해져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꾸 려갈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일본어와 서 울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단다.

일본인이 많이 숙박하는 롯데 호텔 앞 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인이 타면 운 행 중에 서울시 이곳저곳을 문화관광해 설사가 하는 것처럼 설명해줬더니 그 사 람이 다음날 예약을 하고 계속 찾더라는 것이다. 게다가 소문을 타서 혼자 감당하 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뜻이 맞는 동료 기사를 모아 함께 일하게 되기까지 발전 했다고 한다.

불황의 늪에 놓인 국민이든, 실업의 고 통을 감내하는 청년이든, 시험을 앞둔 수 험생이든, 세상에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뿐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 계 제로의 시대, 자강불식(自強不息) 만 이 '온전한 나'를 만들 수 있다. '온전한 나'를 만들었을 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위기일수록 자강(자 기혁신)은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다. 이러 한 자기혁신의 동력이 시너지로 작용할 때 사회 건전성도 확보되고, 국가 경쟁력 도 생겨나지 않겠는가.

社 說

정리되는 대선 판도…목표는 정권교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대선 경쟁 구도가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김부겸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실질적으로 문재인·안희정·이재명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당은 손학규의 국민주권개혁 연대와의 통합으로 역동성 마련의 계 기를 잡았다. 여기에 정운찬 전 총리가 조만간 통합 대열에 합류한다면 안철 수·손학규·정운찬 등의 3각 경쟁 구도 를 통해 대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야 권 주자들의 경쟁과 이들에 대한 검증 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 권 교체와 국민 통합의 길을 여는 촉매 제가 돼야 한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분열과 반목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민 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흐르는 불신 의 강은 깊다. 민주당은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국민의당을 분열 세력으로 보 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 정당으로 폄하하고 있다.

두 정당의 반목을 치유하는 길은 의 외로 간단하다. 다당제 구도에서 서로 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키워야 한다. 인 수합병식의 통합론이 아닌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따라 연립 정부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열린 자세 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연정 카드를 거 론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이를 대선 전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진정 성이 관건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 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선 결선투표 제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민주 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당과 연정을 공동 공약으로 내거는 방법도 있다. 어 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전남만은 구제역 침범하지 못하도록

최근 전북 정읍에서까지 구제역 의 심 신고가 접수돼 전남도가 구제역 청 정지역 사수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 했다. 전남도는 전국 광역시 ·도 가운데 서울·광주·제주와 함께 1934년 관측 이래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 은 지역이다.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주요 사육지 인 전남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된 데는 우선 지역 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 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축산 시장 상황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유입되 는 소·돼지가 적어 가축 질병 감염 가능 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은 4면 가운에 서쪽과 남쪽은 바다, 동쪽은 구 제역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과 인 접한 환경적 요인도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성을 잇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까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는 기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강하고 발생지인 충북과 전북의 모 든 우제류 반입을 금지하며 차단 방역 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 역시 전 북과 경계에 있는 영광·장성·담양·곡 성 등에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37개 조류인플루엔자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축 산 관련 차량을 소독하도록 했다. 이외 에 또 다른 시·도와 인접한 6개 시·군 에 구제역 관련 이동 통제초소를 추가 로 설치하는 등 구제역 청정지역의 명 성을 잃지 않기 위해 빗장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서 초동 대처에 실패하면 피해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축산 시설물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24시간 비 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시도 방

無等鼓 👀

만인보와 5·18

시인 고은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에 연루돼 체포된 뒤 1980년 5월17일 성남 육군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 박 정희 대통령을 쏜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이 쓰던 방이었다. 이튿날 5·18이 터 졌고 학살이 시작됐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그에게 교도관들은 "광주에서 사 람이 죽어가는데 너 같은 거 하나는 아 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흘렸다.

고은은 그 말을 듣고 "내 목숨에 대 한 위기감뿐 아니라 광주의 위기를 느 꼈다"고 회고했다. 시

를 통해 광주 시민들 의 삶을 연장시켜주 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로 쓴 한민족의 호적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인보는 5·18이 계기가 됐 다. 독방에서 구상을 마친 고은은 1986 년 1권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30권을 완간했다. 4001편의 시에 등장인물만 5600여 명에 이른다. 27권부터 30권까 지 네 권은 주로 5·18과 관련된 인물들 을 그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처음 폭로한 고영 태 씨 부모도 만인보에 등장한다. 아버 지 고규석 편에는"하필이면/ 5월 21일/ 광주에 볼일 보러 가/영 돌아올 줄 몰 랐지/ 마누라 이숙자가/ 아들딸 다섯

놔두고/ 찾으러 다녔지/…/ 광주교도소 암매장터/ 그 흙구덩이 속에서/ 짓이겨 진 남편의 썩은 얼굴 나왔지"로 쓰여 있 다. 어머니 이숙자 편은 "망월동 묘역관 리소 잡부로 채용되었다/…/ 막내놈 그 놈은/ 펜싱선수로/ 아시안게임에서 금 메달 걸고 돌아왔다"고 썼다.

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탄에 스 러진 박금희 양도 만인보에 나온다. "양림동 건너가는 양림다리 다급한 호 소였다/…/ 피를 나눠 주세요/…/ 전남

여상 3학년 박금희/… / 기독교병원 헌혈하 고 돌아오는 길/ 탕탕 탕/헬기에서 쏜/…/

총 맞아/ 거리에 피 쏟아버렸다"

만인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민초 들의 처절한 삶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 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과 수의 발표로 37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확인됐는데 만인보는 이미 박 금희 양 사례로 증언하고 있다. 만인보 의 마지막도 5·18이다. 고은은 '2030년 5월'이란 시에서 5·18 때 죽은 아이가 2030년 5월 50세의 최연소 대통령이 돼 광주를 방문한다는 상상력을 발휘 했다. 만인보 속 인물들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则日朝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제 부 220-0663 ⟨FAX 222-8005⟩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